

귀론가



[해제]

<귀론가>는 『시조(時調) 초(抄)』라는 책에 수록된 작품 제목 중 하나이다. ‘시조 초’라는 제목은 ‘시조’ 작품을 초록(抄錄)하고 있다는 뜻으로, 즉 시조 작품을 취사선택(取捨選擇)하여 기록했다는 뜻이다. <귀론가>라는 제목의 정확한 뜻을 알 수는 없으며, 가사 작품이 아닌 시조 작품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제목 하에는 60여 편의 시조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기존에 창작되었던 시조 작품들이거나 그 변형 작품들로 판단된다. ‘귀론가’라는 제목은 필사자에 의해 대표 제목으로 붙여진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원문]

詩調 抄

귀론가

천하는 티평성디하고 부모는 천세만세 하고
화형제낙 천조의 봉우유신 흘씩시면
세상의 제일가는 스람 외썩진 부귀공명을 한번뭇헐가
아희는 약비허고 죽정은 뷔여논데
헛터진 바독을 뉘주어 다물을고 한가이 술취코
송하의 누어쓰이 절가난줄 몰니라
눈은 마즈 휘터진 계화을 뉘라셔 굽뎃션고
굽을절이면 눈속의 ∞을손이야
진실로 세한고절이 이의셔 더혈손야
들은 한송정의 발거잇고 물은 파두의 존존
경덕의 무심 빅구논 오락가락 헉다마논
철리와 뉴외현 낭군은 가고 아니뭇시논고
수양손 날인물이 니제의 원루되야
주야불식허고 여혈여혈이 우논 싯즌
위국충성을 못닉 흘리노라
엇그제 님니별허고 부벽스창의 싯흙업시
황훈의 지논 싯과 벽뉴의 걸인 달을
아모리 무심이 보와도 불승비감 허여라
늘고 병든 몸니
척듬고 누어시이
청풍은 문을 열고 명월은 방의든다
두어라 청풍명월이 기 님벗인가 헉로라
지당의 비썰리고 양뉴의 님기인제
사공은 어디가고 빈빅만 믹연논고

어디서 싹일흔 빅구는 오락가락하느니
추강의 밤니들어 물결이 초노미라
낙시 들어온니 고기안니 무노미라
무심헌 명월만 실고 빈인빅 도라오도다
이러도 승딴티평 저러도 티평승딴
료지일월이오 순지건곤이라
우리도 승쥬외웁고 동낙티평허리라
첨피괴워^ㄴ 훈딴
녹죽이 의의토다
뉴비군즈여 낙딴 한나 빌이염
우리도 솜강영팔 조목을 낙가불가 훈노라
양뉴은 실니되고 황양^ㄴ 은 복되야
구심솜춘의 솟느니 나의 수심
누구셔 녹음방초을 승화시라 흥던니
손영누 빅긴 후의 빅운봉이 새오와라
도화쓴 말근물이 골골이 흘너느딴
아희야 무릉니 어디믹요 나는데가 흥로라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루허다
중천 써잇셔 임의로 든이면서
굿딴여 광명훈 들빛춧 조춧가며 덩느니
딴심거 울을 숨고
술을 갓고와 명즈로다
빅운 김푼속의 날을인눈줄 저늬알니
명반의 학빅회훈이 닉벗진가 흥로라
닉집이 그웁도다 두견이 나치운다
만학천봉의 독폐문 허여는데
어디셔 흥진의 샷이여와 다올타 허노내
인싱 얼믹치니 빅년 취직을로
장안 빅만 가화 뉴간의 탄금성 단이논딴
어디셔 망영의 것쓸은 외다올타 허느니
천지은 만물지역여요 광음은 빅딴지과직이라
인싱을 세알니이 외창히지 일속일다
두어라 약몽부침이 안이늘고 무엇혈이
복소딴 돌이논 절이
머다현들 어이 멀이
청손지송이오 빅운지 하연만는
그 골에 안기 기픈니 아무데줄 물를네라
창오손승제훈니 굴룸조춧 소상의늘여

야반의 혈너들어 승간우 되온뜻지는
 니비의 천연루헌을 씨셔볼가 흐노라
 설월이 만창헌디 발람아 부지말아
 리니성 안니 줄을 파년이 알것만는
 돌밭고 아온적기논 황제기가 흐노라
 금준의 주적싱과 옥루의 탄금과
 초이성중의 어닉성이 조턴이
 월명습경의 히군성이 덕옥 조터라
 동창 기명결늘
 님일위 출승허니
 비동방즉명이라 월출지광이여다
 탈양금 퇴현침허니 전전반칙흐노라
 천지로 장막숨고 일월로 등촉숨아
 복희을 휘여다가 주준의 혈여두고
 남극의 논인성과 흙씨 들글여 흐노라
 세상 승람이 인싱을 돌만역여
 두고 쏘두고 먹고놀줄 몰루거든
 천금이 손진환불닉니 먹고놀가 흐노라
 소상강 세우중의 갈속갓쓴 저노웅아
 일엽주을 흘이져어 어딤기로 횡허느다
 티빅이 비승천허니 풍월실고 가노라
 신농씨 송획초허셔
 만병을 다 회춘호되
 송사로 들인 병은 빅약이 무회로다
 아마도 널로든 병이니 네고칠가 흐로라
 미화 넷 등걸의 춘절이 도라운니
 넷핏던 가지의 피염죽 허다만는
 어딤셔 빅설이난 분분훈이 필동말동허여라
 수양손고 술이씩거 위수변의 고기낙가
 의적이 바진술과 티빅 논든 돌의
 요순적 오현금 가지고 긴밤 식울가 흐노라
 가로라 승각손아 다시 보즈 한강수야
 고국손천을 씨나고 저허여만는
 시절이 하분분훈니 다시 못볼동말동 허여라
 딴하허되 입피업고
 𠄎 가터되 팔이업다
 것곱고 속궁근양은 한승상 진평갓고
 시시로 능작딤무훈이 치우쓰허여아

칩발노응이 죽장을 잡고 옥난가의 지혀서서
 칩운을 가로치며 고히이 제연만는
 수피칩운흔이 지우제 흥허리오
 링호연 타던 저나귀 등의 톱칩이 먹던 천일주 썰고
 도연명 보려허고 오뉴촌의 들어가니
 갈건의 술을 지나소느 세우싱인 흐노라
 닉논의틸 미온님이 초방중의 닛다만는
 노니라 불너니며 히금이라 헤닐손가
 언제나 히동창 보라미 피야끼고 날가흐노라
 금노의 흥전흐고 두성이 쇠잔흐도록
 어딴가 잇셔 뉘스랑밧치다가
 월영이 승난간가야 칩바다라 와느니
 학턱고 저불부는 아희 너다려 말무어보즈
 오지연 좌각니 누구누구 모여던니
 내뒤예 남극성 오시이 그대 무려보소서
 븐삿고 섬거을손 아마도 셔초픽왕
 기통 천흐는 어드나 못어드나
 천리마 덜딴가인을 뉘계전코 도라가니
 시승리 오뉴촌의 도쳐스의 몸이되여
 줄업슨 거문고을 무심이 세와시니
 칩구도 지름흐는지 우즐우즐흐는고야
 초방석니 마지말아 낙엽의들 못안지야
 쇼불 혀지마라 어제진 돌 도다온다
 아희야 박슈스치마 업다말고 ∞렴은다
 가스칩년스를 칩년이 기얼미니
 질병우한든이 남느날이 아조적다
 아희야 비칩세 술인싱 안이놀고 무엇혈이
 공손이 적막허딴 슬피우는 저두견니
 축국흥망이 어제 오늘안니여든
 굿턱예 피나계 우러셔 각의수심 톱느니
 녹수청스 기픈 골의 청여스보 도려가니
 천봉의 칩운이오 만학의 연위로다
 그 공의 경기 묘호니 놀고 갈가허로라
 심연을 경영허여 초당 훈간 지어니니
 반간은 청풍이오 반간은 명월이로다
 강손은 들일디 업시이 압두고 불가흐노라
 갈건의 밧튼 술을 나흔즈 취계 먹고
 시비을 반기흐고 죽임의 누엇시니

광풍니 세웃을 달이고 잠든 날을 씌오미라
 봉니손 안난벗지 불로초 뵈니엿시되
 귀밋치 세여시이 먹엄즉 허다마는
 북당의 학발 계오시니 계둘 리가 허노라
 황학누 저소리 듯고 고소되로 올라가니
 한스스 초바람의 취헌술 다씨게라
 아희야 주가하쳐 오년의고주허여라
 히지면 틱식허고 초칙성의 단장허라
 일시나 잇자하니 구존비는 무슴일고
 워 촌의 일계명허니 글을 술허는노라
 어화 우는지고 어우은 일도 보완지고
 소경이 붓을 들고 그리느니 세스수를
 그리고 못보는팅이야 제오니오달을야
 나리 언제런지 니리로서 찢리갈제
 월명스창의 뉘집 술취코갈리
 돌지고 어도온 밤의 아모던줄 몰네라
 시셔로 비을무어 풍월로 독굴달어
 부뒀바다의 의심업시 씌워두고
 언제나 고품불거든 책문섬의 드러가리오
 님천을 초당숨고 석침을 베여시니
 송풍은 검문고 두견성은 노리로다
 세송의 무스한인은 나쁜인가 허노라
 병풍의 글인두계 고죽군 이즈로다
 수양손 어딴두고 누을피허여 예완는다
 이제는 주무왕 업서시니 숨어 무슴혈니
 평심의 돌을손 무안왕 관운장은
 먹근삿 못일오고 칼알히 녀시되니
 지금의 녀넌흔총의를 못니슬허 허노라
 니화우 헛삿리고 뉴세셜 날이적의
 청여의 술을시고 어딴미로 흥헌느니
 무릉의 봄가다하니 전송허라 가노라
 뉘라셔 나즈는 창박과 벽오동을 심거느니
 월명청반와 영파손은 조타만는
 밤중만 굴근빛소리 익슨느스 허여라
 식벽달 오기억기 동정소송 어딴두고
 예관한등의 줌든님을 씌오는다
 우리도 철이의님 이별허고 줌못일워 허노라
 강티공의 낙시되에 엄즈릉의 긴줄미여

종안의 비을타고 범여호로 들어가니
 퉁구야 나지마아 네 벗진줄 모로노라
 청계승 초당외의 봄은 어니늦저느니
 니화퉁설형의 뉴식황금뿐니로다
 만학운 촉퉁성훈의춘의 망연허여라
 녹수는 잔잔덩경싼싼양슈청청솟고리
 쌍쌍화작작 범나뷔쌍쌍놀짐성굴
 버러지다쌍쌍이 싱것거든 엇타옥용
 흥안은 니별명인허고 독숙공방누여우 허노미라
 만고역디 조진중의 명철보신 누구
 누구 범여의오호쥬와 장일의 적송조
 와장한의 강동거와 소광의손천금 과진쳐스의 귀거리와 악마도이
 닷섯사람의 견고고도는 못밋칠가허노라
 ∞ 펄언손중의 학발노옹이 고요독좌
 흥남봉이라 바람부니송섯실이오 안기피니 학전흥이라 쥬격제금은 천고한이오 적다흥조은일 ∞ 품이로
 다 ∞
 어니뷔손적막고 나는홀노낙무궁이 허노미라 ∞ 승춘식 조랑마라 화잔후면 접불리라 소군옥모와귀비 화
 용도 호성토마외진이 피여잇고 녹숙청송 은천고달이오벽도 흥형은 일년춘뿐 이로다 ∞
 가씨임일시 화용을앗게 무슴허리오
 퉁구는 편편디동강상 비허고중송은
 낙낙성수 벽송취란디아동도점점훈 외희석양은 빗계잇고 잔녕은 북변요요훈물의
 일엽쥬 흘리져어 술을 시고고리 승류허야 임거리 허리라
 술인조는 속라허니 니죽그후면비알리
 라간중 썩근중부술거든 보다져임과
 인명이 지중허니 술인조심허렴은다
 싱미줍어 길들여 두메경손영허고
 퉁마씨계 바들에 뒤동손송정의미고 손조궁글모지 낙거움버들 어섯여춘
 뇌예돌을 지즐너노코 아희야 날불임 오셔들 안뒤여 허로오소서
 이제는 못보계허여 못썰시도적실허다
 철니말리 가는길히 허괴절식허고
 풍낭은 절도헌데 황하수가누지고
 복희수 것너져다 심미손 갈가마귀가
 퉁퉁식 기^스으로 감도라드려 예가^스 각제각살각 각각값 죽기다가 바히춧돌도 못어더먹는 시절의
 너어디가 님춧불이 아희야 날불님오셔들 안싱심 도주려죽다 말말고쌀쌀리그리다가어 질병어더셔 달바
 조밋아장밧삭건이 다가괴운이 식진허야 저근소마보신후의헌달리 출려들고 발닥жат바라져 드라고 살라
 슬라
 진봉명스 만장봉니 청천삭출금불용이라
 거벽을흘리파야 복두승각이요괴암문투기허야 남한중뒤오다

좌용은 낙손이오 우후인황세식은 반궁이요 송궐 이요 속괴은종령출인 걸이요미지라 동손아지고 여
성덕의관 티평문물 이만만 세기금탕이로다 연풍고국티만안하야 황국단풍후추절의 인눈을볼여하고 연
확등님허여 취포반환호오면서 감격군은허여라

천지가

간밤의 술을 디취케먹고 북평누의 울나 디몽을 중간쉬니

아귀수중의 들어가 철니용 마을 어더 천만전을

실고 녹름쥬스중의 드러가 녹취지주를 스셔 빅비를 먹근 후의 의괴가 호탕컷논 불승취흥을 허여 말니
장성의 드러가흘억고손을흔이 슬프다 진시황이 녹국을 드리치고 아방궁 영작홀제 송가좌만인이요 하
가근오중기라 위엄이 진동홀제 뉘뉘라 항거허리 방스의 말을 밋더 중싱불스 허려하고 동남동여을 어더
숨산 촛자허니 희중이 피외허니 하쳐의 숨산지요 섬셔을 희득허여 만리중성을 싸아늬니 연위가 광딤흔
들 도덕을 방비할야 초손의 우노범과 픽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